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법당 부처 · 내 형상 둘 아니게 봐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는 기필코 나의 뿌리를 발견하리라 생명을 걸고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님을 알면서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간접적으로 듣고 그냥 그렇더라 하면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가면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실행을 하면서 사람으로서 우주의 근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세상만사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서 모든 일체 만물이 스승인 줄 알아야 돌 하나를 봐도 은혜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법으로서 정의를 바탕으로 삼아서 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만물의, 아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조상들은 물론 곤충에 이르기까지 만물에게 은혜를 갚게 됩니다. 이게 극치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근본 본분입니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직접 주고받는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돼서 주고받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지럽게 이 말 저 말 넣어서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께서도 그렇지만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여러분이 마음의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진실한 행이 꼭 성취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하나 은혜로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옷감을 만드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그래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조그만 거로 방편을 세웠지만 큰 거나 적은 거나 똑 같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나와야지 억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상대방에게는 아무거나 준다면, 한데 포함해서 만물이 내 아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물질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잘못됐다 잘됐다 따지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전자 '부(父)'와 현재 '자(子)' 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한다면, 일차적으로 나를 발견하면 바로 '견성(見性)' 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건 형식이지 진짜가 못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못 합니다.

여러 말 하기 싫어서 주인공에 모든 걸 맡기고 부모지간에 잘못 됐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정색을 하고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왈가왈부 하지 말고 안에다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부드러운 행동 해주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주면서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없었다면 왈가왈부 할 것도 없는 거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해 나간다면 가정에 화목을 가져 올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즉 말하자면 도의와 의리를 지키면서 자유스럽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즉 자비라는 것은 남을 이익하게 해주는 것이며,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말 안해도 능히 주인공을 잘 아시겠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닙니다. 안에도 포함됐고, 바깥에도 포함됐고, 쉴 사이 없이 끊이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자체의 삼라만상 대천 세계를 그대로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라 이 겁니다. 높이 봐도 어그러지고 내려봐도 어그러지니까 나와 똑 같이만 봐라, 이겁니다. 법당에 들어 와서도 형상적인 부처로 보지 마시고 내 형상과 둘이 아니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데서 50%가 확산되니까 말입니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데서 모든 행을 하십니다. 천백억 화신이라고 했지만 그건 수효가 없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화하게 되면 지금 시쳇말로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로 인해서 입자가 되고,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또 원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고 개발하는데도 지 · 수 · 화 · 풍의 근본 자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전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생산이 돼서 나오면은 나왔다가 또 꺼지면서 보이지 않는데 원자로서 또 다시 화해서 진화돼 가지고 생산이 돼서 나오고 하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바다의 물도 그렇고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파도가 일고 소용돌이 치고 그러느냐.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 입니다.

> "내 뿌리 기필코 발견" 목숨걸고 공부해야
>
> 함이 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체험하고 깨닫게 돼

▲질문자1: 오늘 저에게 이와 같은 복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쭙고 싶은 질문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주인공 공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참말로 신비스럽고 오묘한 도리였습니다.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다 있다는 주인공, 아주 쉬운 말 같으면서도 너무나 큰 진리가 담긴,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면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면 한번 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늘 여여하게 있다는 주인공, 그 주인공을 스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 버리면 될 터인데 어리석은 것이 중생이고 따지는 것이 중생인지라 주인공을 믿는 척 하고 이해하는 척 하면서도 몰락 믿고 맡기지 못하고 수시로 의정(疑情)을 내고, 그래서 그 의정 (疑情)때문에 저는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도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거주춤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23년 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의 육체 속에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배운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의문은 주인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마음을 내시면 어떤 이치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암 덩어리가 없어져서 결국 병이 낫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주인공의 정체가 무엇이며 마음의 근본을 이루는 알갱이는 무엇이며,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알갱이는 무엇인가를 혼자서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근본 알갱이와 물질의 근본 알갱이가 무엇인가를 알면 자연히 이러한 의문들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근본 알갱이에 관해서 양자 물리학 서적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육질이든 물질이든 쪼개고 쪼개면 마지막 단계는 분자이고 분자는 다시 원자로,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은 중성자며 양성자며 전자가 모두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갖는, 즉 입자로서 제자리에 있는가 하면 금방 파동이 되어 빛처럼 어디론가 뻗어 나가는 매우 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결국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갖는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 등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설명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토마스영이나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헬리스탭이나 이반쿠크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원자 물리 학을 공동 연구하였으며, 현재 런던 대학의 원자물리학 교수인 데이빗드 봄 등은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가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그래서 우주의 마음이 결국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의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음의 근본 알갱이에 대해서 뇌신경학 및 정신의학의 서적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웬 필드는, 마음을 뇌조직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뇌조직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결국 마음은 뇌와는 전연 별개의 것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도 불멸하는 것이라고 했고 따라서 앞으로 마음을 더 연구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과도 교신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의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유명한 뇌생리학자이며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죤 엑클스는 우주의 삼라만상은 물질, 마음 그리고 정보 등 세 가지로 떠 있다고 말하면서 물질과 마음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레스티라는 환Z제를 사용하여 마음을 연구하여 노벨 수상자로 거론될 정도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미국의 스탄리스 라프크로프는, 마음은 사람의 몸에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그 마음을 구성하는 근본 알갱이는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알갱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신과학 운동의 선구자이면서 양자물리학자이기도 한 프리쵸프 카프라는, 인간의 마음은 물론 실존하는 것이며 마음의 근본 알갱이와 물질의 근본 알갱이는 동일한 것이며, 우주의 본질 자체가 마음 알갱이이기 때문에 결국 우주는 마음 알갱이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 바람 · 세균 · 식물 · 짐승 그리고 사람은 모두 그 근본은 동일한 마음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형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허망된 망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눈이 사물을 보기는 하되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귀가 듣기는 하되 귀가 귀를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체험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있으나 주인공이 주인공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근본을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의 세계적인 과학자나 마음의 근본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뇌생리학자는 이구동성으로, 마음은 사람의 몸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물질의 근본 알갱이와 동일한 것이며, 또한 우주의 알갱이와도 동일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 주시는 주인공이 바로 그 근본 알갱이인 것입니다. 즉 우주의 근본 알갱이가 주인공이요, 마음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이요, 육체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이요, 물질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내면 어찌 육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퍼져 나가듯이 마음을 내면 그 파문이 암 덩어리가 아니라 육체의 어디까지라도, 아니 우주 법계의 어디까지라도 파문이 아니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고 이와 같이 공부한 것을 한마음선원 대전지원에 새로 오셨으나 저와 같이 의정이 많아 주인공 공부가 잘 안되는 도반들에게 전달하고자 내 나름대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 도반들에게 책 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공부한 것이 스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순 엉터리 지식을 도반들에게 전달해서는 큰일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둘째는, 비록 제가 공부한 것이 순 엉터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스님께서 주인공 공부를 가르치실 때 한 절반만 가르치시고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가 맛을 보도록 가르치시는 의도를 제가 눈치코치도 없이 까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조그마한 책자를 스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시든지 해 주십사 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장시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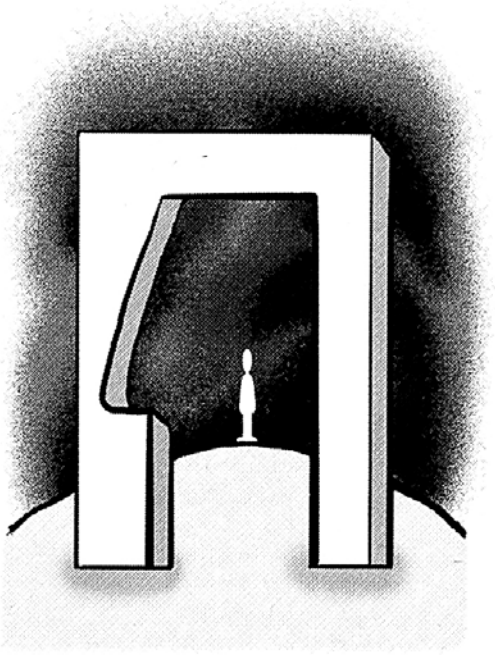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님: 첫째에 우리가 물질로서 현재의 자기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부(父)' 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시쳇말로 전자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전자 '부(父)' 라고 합시다. 전자와 현자(現子)가 한데 합쳐지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 이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한데 합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떠한 문제의 용도에 따라서 방출이 되죠. 많은 방출이 됐다가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 제자리에서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도 없고 더한다 덜한다고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에서 어떠한 물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바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발산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발산이 되니까,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생산이죠. 이건 발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산이죠. 모든 게 생산을 해서 또는 더 앞으로, 즉 말하자면 발전이 되고 능숙해지면 앞서 발전돼서 행했던 그 작용은 그냥 한데 합쳐서 없어지고 다시금 또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살고 있죠. 그것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치적인 문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발견하느냐의 문제죠. 과학자들이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기고 요거는 몇 자고, 둘레가 얼마고 요건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나오고 요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신통이 바로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잘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오신통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나' 라는 존재를 알 길이 없죠.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죠. 과거 · 현재 · 미래심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배역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지혜롭게 어디 걸림이 없이 여여할텐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어항 속에서 고기가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도 공기통 안에서 한 발짝도 떼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공기 바깥으로 벗어나도 아주 광대하고 여여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길러야 한다. 첫째는 마음을 찾아야 한다. 그것도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있는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하는 행하는 그 모두 전체를 바로 내 알갱이가 하는 거니까, 영원한 뿌리가 하는 거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하느냐면, 자기가 이 물질을 형성시켰거든요. 형성시킬 때에 정자 난자를 빌어서 같이 해야만이 형성이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가 형성을 시켜 놓고 자기가 이끌어 가는 거죠. 자기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생중생들은 전자에 살 때에 악업 선업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오신통이, 그냥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전부 거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에 살던 입력이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거죠. 나오니까 입력된 그 자리에다 다 맡겨라, 몰락 맡겨라. 거기서 지금 운행을 하는 거니까, 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니까, 보게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몰락 다 놔라.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안에도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혼자 한 것도 없고,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뭘 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놔라 이거죠. 여러분이 놓으래도 뭐가 있고 뭐가 걸리고, 조그만 일은 놓을 수 있는데 큰일이 생기니까 못 놓겠습니다. 못 놓긴 뭘 못 놓아요? 자기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건데. 자기가 혼자 먹고 가는 겁니까. 혼자 다닙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덩어리가 지금 다니는데 뭐가 혼자입니까? 놓을 수 있고 놓을 수 없고 그게 거론이, 진짜 놓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양자가 바로 전자라는 걸 안다면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겁니다.

그래 부처님이 응신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만 들어가면,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될 거고, 마음은 무한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곤충 속에 들어가면 곤충이 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게 없으니 내 아님이 없다는 거죠.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라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 할 때는 원자에서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원자도 다시 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지금 용어를 변경해서 말하는 거 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 병자 속에 들어가서 병자와 하나가 되니까, 정말 저 분 말마따나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친 그 능력이, 즉 말하자면 불입니다. 불이라면 그냥 없어지죠. 태워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래로 배출시켜서 없애는 것도 있고, 갖은 각색으로 인체에 해롭지만 않고 유익하다면 어떤 거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따지고 본다면 지 · 수 · 화 · 풍 자체가 아주 거대한 겁니다. 지 · 수 · 풍이 한데 합쳐서 비벼대니까 한데 합쳐 돌아가다가 보니까 원기가 생기고 뜨거운 볼이 생기고 이런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검은, 즉 말하자면 볼이 없으니까 검죠? 검은 지평선 자체가 바로 지 · 수 · 화 · 풍이 뭉쳐진 에너지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가 스스로서 폭발이 됐느니 뭐니 이러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폭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폭발되는 것 봤습니까? 우연히 과학자가 되는 것 봤습니까? 우연히 연구하는 거 봤습니까? 우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형성하고 또는 별성을 형성시키고, 별이 형성됨으로써 불덩어리도 크게 이루는 별이 되고, 생명이 생기

☞ 18면으로 계속

시대 발전따라 용도 · 방편도 변화